

# 다문화가정 세심행정 앞장

임실군, 지원센터 통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요리교실·예절교육 등 결혼이주여성 큰 호응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실군의 세심한 정책이 지역사회 통합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언어와 환경, 문화 경벽에 가로막혀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은 현재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9개국 212세대 총 870명의 다문화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 여성의 차별과 적응, 일자리, 자녀 교육 문제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지난 2009년 '임실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김경순)를 설립했다.

임실읍에 소재한 지원센터는 교육실, 언어지도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결혼이주여성 지원부터 자녀교육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기초적인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비롯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부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임실군의 세심한 정책이 지역사회 통합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모·자녀 교육을 위한 방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 문화 이해와 식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생활요리 교실'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전통예절교육'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공약 사업인 '다문화가족 친정방문지원 사업'은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내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는 13가정 50명이 친정을 방

문했으며 친정부모 초청 사업과 더불어 이주여성의 아픔을 이해하는 세심 행정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문화어울림, 청소년 진로 지원, 학력지원, 행복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식과 문의의 차이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결혼이주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건강 100세 시대 교육열 뜨겁다

순창군, 치매예방 지도사 등 평생교육 150여명 수료

순창군이 올해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 추진한 평생교육과정인 군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막을 내렸다.

군은 지난 28일 '2017 전북대 순창분원 평생교육과정 수료식'을 장류사업소 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수료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교육생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교육생들의 수료를 축하했다.

군이 올해 처음 실시한 '순창분원 평생교육과정'은 지역사회에 꼭 맞는 평생학습 과정 운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민간자력 취득 연계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7월 3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1~2회 진행됐으며 교육과정별로 30차시에서 90차시 까지 밀도 있게 진

행했다.

올해 운영한 교육과정은 치매예방 지도사 과정, 산야초와 건강관리 과정, 재테크 컨설턴트 과정, 우쿨렐레로 즐기는 여행과정 등 총 4개 과정이다. 144명을 모집해 129명의 교육생이 최종 수료하는 기쁨을 맛봤다.

이날 진행된 수료식은 우쿨렐레 반의 '울릉도 트윌스트'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4개 과정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황숙주 군수는 "배움이란 언제나 설레고 즐거운 일이며 이번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 군민들이 교육에 대한 갈증이 해소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과정을 발굴하고 실행해 더욱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가 지역의 마을숲인 '비보림'을 중심으로 문화생태 탐방을 진행한 가운데 숲속에서 대금연연을 선보이고 있다.

# 문화버스 구석구석... 남원 숲 누비다

시,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운드퍼포먼스·대금연 등 다양한 체험으로 시민 힐링

남원시 문화도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남원 문화탐방 프로그램 '문화버스 구석구석'이 참여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시작했다.

최근 남원시민 20명이 참여한 남원지역의 마을숲인 '비보림'을 중심으로 문화생태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버스 주제인 '비보림'이란 선조들이 마을지역의 풍수적 결함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숲

을 말한다. 탐방코스는 운봉읍 행정마을의 서어나무숲(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대상)과 운봉읍 신기마을의 마을숲, 산동면 벽화마을과 마을숲을 차례로 방문했다.

'문화버스 구석구석'에 참여한 남원시민은 "사운드 아티스트 이혜령 작가의 사운드퍼포먼스와 숲속에서 대금연연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체험으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문화버스 구석구석 '생태체험:마을숲(비보림)을 찾아서'는 9월(9일, 23일)과 10월~11월에도 진행이 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떡볶이소스 해외진출 가시화

지역 토마토 고추장 활용 베트남 수출 계약 성사  
향후 5년간 500톤 공급

순창군 토마토고추장을 활용한 떡볶이 소스가 베트남 수출을 확정하면서 순창군 소스산업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군은 건강식품 가공업체인 농협회사법인 황금나무(주)가 최근 2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굿웰 떡볶이 소스' 1년분 70톤, 향후 5년간 500톤을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하는 '굿웰 떡볶이 소스'는 순창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기술을 이전 받아 생산한 발효토마토 고추장과 순창에서 생산된 삼채추출물에 순창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만든 소스제품이다. (주)황금나무는 지난해 7월 시장 조사와 올해 6월 상담회 등을 거쳐 철저한 시장 조사 후 이번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소스의 생산은 국내 최고 수준의 소스 생산 시설과 기술력을 보유한 교촌 그룹의 비에이치앤바이오에서 생산하기로 해 사업 성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굿웰 떡볶이소스는 9월부터 호치민 소재 대형 한인식당 등에 우선 공급되고 10월 부터는 호치민, 하노이, 다낭 소재 롯데마트, 이마트 등을 중심으로 현지인 대상 대형 슈퍼 등을 통해 전시 판매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주)황금나무에서 현지

관측행사도 진행해 현지인의 입맛을 공략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수출계약 성공이 순창 장류를 활용한 소스제품의 해외 시장 공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번 계약을 통해 순창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와 고추장, 삼채 등이 년 30톤(5년간 200톤)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군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수출계약의 베트남 현지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 굿웰 떡볶이 소스를 공급받아 베트남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기존 한국에서 수입되거나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 유통되는 제품과는 전혀 다르다"며 "매우 고급스러운 맛이 향후 베트남의 젊은 층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황금나무(주)는 당도독 할보리빵, 청국장 등 당도 등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소재 및 제품을 재배, 가공, 판매하는 회사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 지역 소식통

### 가을무 가격안정 지원사업 접수

순창군은 9월 22일까지 '2017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협에서 가능하다.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삼각농정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 농산물 판매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 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 하반기에는 노지 가을무가 신청 대상 품목이다.

지원범위 및 대상으로는 품목당 1,000㎡ ~ 1만㎡이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등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사무소 및 농협 접수 창구에서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법인(농협 포함)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9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에 기대 된다"며 "농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중소기업 환경개선 수요조사

남원시는 관내 근로자들에게 쾌적하고 근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수요조사를 9월 5일까지 실시한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에 복지 및 편의시설,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분야별로 총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여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2017년에는 (주)재성 외 10개 업체가 집진시설, 기숙사개선, 작업장 포장, 화장실 개보수 등 쾌적한 복지 환경속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시에서는 그동안 기업 간담회, 중소기업 정례회, 우편발송, 직접방문을 통해 다수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신청을 받아왔으며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2018년도 도비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0인 미만의 제조업체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돌아가는 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